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樣相

宋 靜 淑*

目 次

I. 序	2) 奎章總目
II. 古典資料分類의 概觀	3) 鑿板考
III.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樣相	4) 東國通志
1) 海東文獻總錄	5) 增補文獻備考
	IV. 結

I. 序

資料組織論 가운데 資料分類는 資料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이다. 資料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공통적 본질에 주안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나 반대로 서로 다름과 비슷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資料分類가 외부적 형태만을 구분원칙으로 삼을 때는 무의미하다. 또한 내부적 형태만 가지고도 불충분하다. 외부적 및 내부적 형태를 동시에 참작하는 분류론이어야 한다. 그런데 古典資料의 경우 외부적 형태는 거의 文獻자료에 제한되므로 결국 내부적 형태인 내용에 의한 분류이다.

본고에서는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그 이론적 전제로 古典資料分類의 概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古典資料分類의 實際書인 海東文獻總錄, 奎章總目, 鑿板考, 東國通志, 增補文獻備考를 대상으로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 釜山大學校 講師

II. 古典資料分類의 概觀

古典資料分類는 다양한 古典資料에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논의의 하나이다. 분류의 작업은 반드시 분류의 원칙을 전제한다. 수없이 많이 쓰여진 資料들을 몇 가지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東洋에서는 前漢末 劉歆이 만든 「七略」에서 제기된다.¹⁾

前漢末 때 成帝가 秦始皇의 焚書坑儒로 古典이 인멸되어 가는 것을 개탄하고 天下에서 遺書를 구하여 宮廷文庫인 秘府에 소장하게 한 다음, 그 校訂을 光祿大夫 劉向으로 하여금 主裁하게 하였다. 이때 向은 每冊마다 校訂이 끝나면 그 篇目을 적고 旨意를 撮錄하여 上奏하였다. 이것이 바로 各書의 敍錄인데, 劉歆은 이 敍錄을 典籍의 種類에 따라 類輯한 것이 「七略」 7卷이다. 이는 現在까지 알려진 東洋最古의 類別目錄이며 分類法의 創始이다.²⁾

그 分類內容에 대해서는 原本이 그 뒤 湮沒되어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現傳 最古의 漢書 藝文志 總敍에 의하면 輯略, 六藝略, 諸子略, 詩賦略, 兵書略, 數術略, 方技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輯略의 ‘輯은 集과 같으니 여러 책의 요지를 모은 것이다. 劉歆은 輯略을 六略의 앞에 두었으니 이 輯略은 후세의 凡例와 같다³⁾

「隋書 經籍志」에 의하면 魏代 秘書郎 鄭默이 宮中藏書를 정리하여 中經이라는 藏書目錄을 만들었고 秘書監 荀勗가 中經에 바탕해서 다시 新簿를

1)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6 (1967), p. 5.

2)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p. 15.

汪辟疆, 目錄學研究,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72 (1983), p. 20.

「…漢代의 目錄은 劉向의 別錄과 劉歆의 七略, 班固의 藝文志가 기본이 되는데, 이를 流別하면 別錄은 提要의 祖이고, 七略은 編目的 宗이고, 藝文志는 史家의 準이다. 三家의 派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後世 目錄學의 鼻祖임은 한가지이다…」

3) 汪辟疆, 전제서, p. 19.

著述했는데 甲部(六藝 및 小學等), 乙部(古諸子家, 近代子家, 兵書, 兵家, 術數), 丙部(史記舊事皇覽簿雜事), 丁部(詩賦圖贊汲冢)의 四部로 나누어 모든 책을 총괄했다.

東晉初에 著作郎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수집하여 四部로 나누어 「晉元帝書目」을 만들었는데 이를 荀勗의 新簿와 비교하면 乙部, 丙部の 내용이 바뀌어 甲部(五經), 乙部(史記), 丙部(諸子), 丁部(詩賦)로 되었으니 經史子集은 李充에서 확정되었다. 이는 古今著錄의 大關鍵이 되었다.⁴⁾

「隋書經籍志」에 의하면 宋나라 後廢帝 元徽 元年(473)에 秘書丞 王儉이 秘閣의 圖書를 整理하여 四部官修目錄을 편찬했으며 이어 別撰에 착수해서 同年 8월에 완성시킨 것이 「七志」이다.⁵⁾ 「七錄」序에 의하면 ‘王儉의 七志는 七略의 六藝를 經典으로, 諸子는 그대로, 七略의 詩賦를 文翰으로, 七略의 兵書를 軍書로, 七略의 數術을 陰陽으로, 七略의 方技를 術藝로 명칭을 바꾸었다. 劉向, 劉歆이 비록 七略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六條이므로 따로 圖譜志를 세워서 전부 七分했다. 그밖에 또 七略 및 二漢藝文志, 中經簿 등에서 빠진 책을 條目지어 方外의 經인 佛經과 道經을 附錄하였다.’⁶⁾

梁나라 때 阮孝緒가 편찬한 「七錄」은 廣弘明集의 七錄自序에 의하면, 撰者가 宋나라로부터 齊나라에 이르기까지 王公의 縉紳館에 축적된 墳籍을 조사하여 目錄과 대조하는 한편 보는 바 듣는 바 있으면 官修目錄과 또한 하나하나 參校하여 본 결과 遺漏된 것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고 그 目錄의 완벽을 기하고자 諸家所藏의 目錄을 널리 調查해서 새로 지은 것이 「七錄」이라 한다. 分類의 細部는 經典錄, 記傳錄, 子兵錄, 文集錄, 術技錄, 佛法錄, 仙道錄이다. 이 「七錄」의 分類法은 自序에서 ‘지금 七錄을 찬술하는데 王儉의 七志와 劉歆의 七略을 참작했다’라고 했듯이 참고했지

4) 余嘉錫, 目錄學發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63(1974), pp. 167-169.

5) 千惠鳳, 전계서, p. 17.

6) ① 阮孝緒, 七錄序, 廣弘明集 卷三.

② 千惠鳳, 전계서, p. 18.

마는 王儉이나 劉歆보다 크게 발전되었다.

「隋書經籍志」에서는 四部分類法을 기본으로 하고 類目的 設定은 舊錄을 비롯하여 司馬遷의 史記, 班固의 漢書, 王儉의 七志, 阮孝緒의 七錄 등을 참고하였으니, 그 分類의 내용은 經部, 史部, 子部, 集部, 道經(附四部末) 佛經(附四部末)이다.⁷⁾ 이로서 四部分類法의 토대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四庫全書 정리에 적용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四庫全書는 淸나라 乾隆帝의 뜻에 의하여 편찬된 총서로서 經, 史, 子, 集 각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대로부터 當代에 이르기까지의 4,470종의 저작 79,070권을 모아 36,000 책으로 分裝했으며, 따로 解題書인 「四庫全書總目提要」 100권이 있다.

「四庫全書提要敍」에 의하면 經⁸⁾은 聖人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할 것을 받아서 만세에 본보기를 드리우는 것으로, 經部에는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孝經類, 五經總義類, 四書類, 樂類, 小學類가 있다.

史⁹⁾는 한 사건의 始末을 상세히 기재하니 성인은 그 始末을 보고 그 是非를 알 수 있다. 그런 후에야 褒貶하게 되니 이것이 史를 作成하는데 고증하는 자료이다. 후세 사람은 그 始末을 보고 그 是非를 알게 되니 그런 후에야 능히 褒貶할 수 있게 된다. 史部에는 正史類, 編年史類, 紀事本末類, 別史類, 雜史類, 詔令奏議類, 傳記類, 史鈔類, 載記類, 時令類, 地理類, 職官類, 政書類, 目錄類, 史評類가 있다.

子¹⁰⁾는 六經 이외에 立說하는 것은 모두가 子部の 책이다. 그 처음에는 서로 섞이었으나 「七略」으로부터 구분되어 이름이 정해졌다. 처음에는 또한 서로 넘나들던 것이 董仲舒로부터 구분되어 명백해져 醇駁이 이에 나누어졌다. 晏子나 鬻子 등과 같이 전해지다가 후대에는 계승되

7) 千惠鳳, 건계서, pp. 23-24.

8) 四庫全書提要敍 無錫周雲青箋注, 經部總敍, pp. 1-3.

9) 四庫全書提要敍 無錫周雲青箋注, 史部總敍, pp. 25-29.

10) 四庫全書提要敍 無錫周雲青箋注, 子部總敍, pp. 59-62.

지 않은 것도 있으며, 釋家와 같이 예전에는 그 條目이 없었으나 지금은 더해진 것도 있으며, 鬻子와 鷓冠子가 漢志에서 道家에 합해진 것과 같이 예전에는 각각 나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합해진 것도 있다.

대저 학자는 經에서 理致를 연구하여 천하의 是非를 바르게 할 수 있고 史에서 일을 증거하여 古今의 成敗를 분명히 할 수 있다.

子部에는 儒家類, 兵家類, 法家類, 農家類, 醫家類, 天文算法類, 術數類, 藝術類, 譜錄類, 雜家類, 類書類, 小說家類, 釋家類, 道家類가 있다.

集部¹¹⁾의 細目은 楚辭가 가장 오래되었고 別集이 다음이고 總集이 그 다음이며 詩文評 늦게 나왔고 詞曲은 그 다음이다. 옛사람은 文章을 이름짓지 아니하였으므로 秦나라 이전의 책은 屈原과 宋王이 賦를 잘 한다고 일컫지 아니 하였다. 六朝에 이르러 集에 編次가 있었다. 集部에는 楚辭類, 別集類, 總集類, 詩文評類, 詞曲類가 있다.

그러면 이제 古典資料의 分類體系를 概觀하기 위해 古今書目分類異同表¹²⁾를 제시 하고자 한다.

表는 버리를 들면 條目이 저절로 환하여지게 하며 간략하게 독자로 하여금 上下가 서로 대비가 되게 하고 종횡이 서로 견주어서 맥락이 잡히게 하여 한눈에 분명히 할 수 있다. 古今書目的 部類는 서로 같지 아니하여 천갈래, 만갈래나 되니 갈래가 있는 가운데 또 갈래가 있다. 그러나 그 바꾸고 덜고 더하는 데에 말미암아 차츰 나아감이 있으니 비교하지 않고 보면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한다.

대개 七略과 四部는 같은 조목으로 함께 꿰어 서로 인연하였으니 비록 변했다 하지마는 일찌기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 처음에는 한 가지가 아니었는데 바뀌지 않는 법이 성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經史子集과 같은 것은 李充에게서 정해졌으니 이는 古今著錄의 大關鍵이 되었고, 現存하는 諸史藝文志表를 보면 四部는 隋志에서 비롯된다.¹³⁾

11) 四庫全書提要敍, 無錫周雲青 箋注, 集部總敍, pp. 87-92.

12) 余嘉錫, 目錄學發微, 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63(1974), p. 169.

13) 余嘉錫, 錢謙益, p. 167.

위 표에서 저자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七略과 四部는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荀勗과 李充은 六略을 가지고 합해서 四部로 하였다. 王儉과 阮孝緒는 또 四部를 가지고 나누어서 七志(錄)로 하였다. 그 部分의 성질을 살펴보면 실제로 근본에 있어서는 改革함이 없다. 지금은 經史子集으로서 서로 잇대어 비교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이것으로서 버리로 삼고자 하는데 그 같지 않은 것은 모두 分別하면 그 가운데에 귀납된다.

둘째, 隋唐志 및 古今書錄은 모두 李充의 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미세하게 같지 아니함이 있다.

셋째, 隋志에 이르기를 「文德殿 目錄에 그 術數의 책이 다시 一部가 되었다. 奉朝로 하여금 祖暅에게 청하게 하여 그 명칭을 지었으므로 梁나라에는 五部目錄이 있다.」 이는 또한 마땅히 表에 기재해야 하지만은 다만 그 나머지 四部의 명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表에 넣지 못한다.

넷째, 宋나라 이후 目錄은 모두 四部에 모아진다. 그러나 오히려 李淑, 鄭樵, 鄭寅, 孫星衍 네 사람은 문득 개혁할 것을 생각했다. 비록 그 설을 쓰는 자는 매우 적으나 著錄部分에서는 變例이므로 배우는 이로 하여금 참고하게 한다. 鄭樵, 鄭寅은 類書를 一類로 하였고, 張之洞은 四部 외에 別錄과 叢書를 두었으니 모두 이치는 잇기에 취했다.

다섯째, 王儉의 圖譜志, 張之洞의 叢書와 別錄은 모두 四部에 포함될 것이 아니기에 따로 한 난을 만들었다. 만약 저 類書가 子部에 속한다면 비록 倣안하지 아니함이 있더라도 隋志 이래로 오랫동안 행해졌다. 이는 그 源流를 表示하는 것이지 따로이 改作할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기에 처음 저서에서 이르는 대로 따를 따름이다.¹⁴⁾

14) 余嘉錫, 錢謙益, pp.167-168.

Ⅲ. 朝鮮朝後期 古典資料組織의 樣相

1) 海東文獻總錄

海東文獻總錄은 朝鮮朝中期 壬·丙兩亂 이후 金佺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 圖書解題의 集大成이다. 金佺의 字는 처음 子美였으나 旅軒 張顯光 先生이 謙可로 고쳐 주어서 뒤에는 謙可로 字를 삼았으며 그의 號는 寒溪亭 또는 敬窩라고 했다.

敬窩는 宣祖 30년(1597)에 安東 義城金氏의 文翰과 世祿之家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黨파와 家患 등으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고 초야에서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43세로 일생을 마쳤기에 詩文集, 道東錄, 朝聞錄 其他 등을 묶은 敬窩集 四冊과 海東文獻總錄을 남기는데 그쳤다.

이 업적을 남기게 한 계기는 스무살 되던 해 旅軒을 방문함이었다. 旅軒은 敬窩에게 몇 권의 冊을 보이면서 「이것이 文獻通考 經籍考인데 이 책은 여러 經籍을 소개한 것으로 이 한 권으로써 古今文獻의 盛衰를 손쉽게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文獻通考 중에서 經籍考만을 抄出하여 附錄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한눈에 經籍의 大略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인즉 우리나라의 文獻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대를 만나본즉 그대는 博識하고 또 才量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文獻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더구나 그대가 거주하는 近邑(安東, 禮安, 榮州, 奉化, 義城, 禮泉, 英陽, 青松, 尙州, 聞慶, 善山)은 兵火(壬辰倭亂)를 면하여 서적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 이것을 수집 편찬하고 또 얻어듣는 대로 이를 기록하여 하나의 文獻解題 같은 것을 編述하면 文獻을 능히 밝힐 수 있고, 또 널리 參考로 삼을 수 있으나 그 著述의 공이야말로 능히 古人의 大作에 못지 않는 업적이 될 것이다.」라고 부탁겸 당부했던 것이다. 그래서 敬窩는 「先生님의 가르침이신데 어찌 제가 따르지 않겠읍니까」하고 그 뜻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물러나왔다.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가는 圖書解題의 작업

이 敬窩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洛東江 左·右 東西地方에 있는 名門大家에서 보관되어 있는 書冊을 찾아다니면서 圖書解題作業을 하자니 著者と 書冊名과 그 내용을 밝히게 되었다.

이 海東文獻總錄에 수록된 도서는 新羅의 崔致遠에서부터 고려를 거쳐 저자의 생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저술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문헌 670여종이며, 이중 麗本 이상의 古典籍이 $\frac{1}{3}$ 을 차지하고 있다.¹⁵⁾ 이 작업의 착수가 스무살 때 旅軒을 방문한 이후이고 이 책의 序文을 쓴 것이 41살 되던 해(1637년)이니 약 20여년이 걸린 필생의 작업이었다.

우리나라의 문헌분류는 이미 世宗때의 集賢殿 藏書閣頌¹⁶⁾에서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이 적용되어 왔다. 四部分類法은 經이라는 類개념 아래 易類 등의 種개념이, 史라는 類개념 아래 正史類 등의 種개념이, 子라는 類개념 아래 儒家類 등의 種개념이, 集이라는 類개념 아래 楚辭類 등의 種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 발상의 근저에는 문헌은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영원하고 불변적인 요소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분히 연역적이다. 類개념인 經史子集은 분류의 기본형으로 적어도 동양에서는 영원하고 불변적인 원칙이라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金然는 중국의 四部分類法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分類體系를 시도하였으니 御製詩, 諸家詩文集, 經書類, 史記類, 禮樂類, 兵政類, 法典類, 天文類, 地理類, 譜牒類, 鑑誠類, 註解類, 小學類, 醫藥類, 農桑類, 中國詩文撰述, 東國詩文撰述, 中國東國詩文合編, 儒家雜著述, 諸家雜著述의 20類이다.

海東文獻總錄 분류체계의 특징은 主體意識의 발로라 하겠다. 편찬하게 된 동기부터가 旅軒이 敬窩에게 文獻通考 經籍考를 보이며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인즉 우리나라 文獻을 알아야 할 것¹⁷⁾이라는, 主體意識의 자각이었다. 이 主體의식이 분류체계에서 나타났으니 經史子集의 관념적인

15) 姜周鎭, 海東文獻總錄 解題, 海東文獻總錄, 서울:學文閣, 1969, pp.3-4.

16) 李載喆, 集賢殿考,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8, p.10.

17) 金然, 海東文獻總錄序, 「但既爲東方之人則東方文獻不可不知」.

四部分類法을 벗어나 문헌을 종합 정리한 자신의 경험에 의해 20類로 독자적으로 분류했다. 이는 實學의 학문하는 태도와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저자 金然은 실학의 거두 芝峯 李晔光보다 약 30년 뒤에 태어났으니 이미 學界는 實學의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朱子學에서 人間은 小宇宙이다. 小宇宙는 大宇宙인 天에 의존하였으므로 大宇宙를 模範하는데서 人生의 大道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象傳에 「天體는 健全하게 운영이 되니 君子는 그를 模法해서 스스로 힘써서 쉬지를 말아라」¹⁸⁾ 했으며, 中庸 冒頭에서는 「하늘이 人間과 事物에 부여한 것을 性이라 하고, 그 性에 따르는 것을 道라 하며,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¹⁹⁾라 했다. 이와 같이 人道의 근본이 天에 있으므로 하늘을 본받아 열심히 닦을 때 인간의 이상인 天人合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하는데 있어서도 관념적이고 연역적이어서 규범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로 資料分類에서도 규범화된 것이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병양란이후 하늘로 향했던 시각을 아래로 돌려 있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유학내에서의 개혁의 학풍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實學이다. 實學에서는 理氣論的 形而上學이 거부되면서 生産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백성의 實生活에 유용한 實事를 연구하게 된다.

그 특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反朱子理念인 陽明學과 考證學 및 西歐科學技術 혹은 天主教의 受容
- ② 主體意識 및 人間均等意識의 고취
- ③ 理氣論的 德性 形而上學의 퇴색 및 科學的 合理主義의 강조
- ④ 觀念論的 거부 및 經驗論的 중시
- ⑤ 積極的인 爲民問題解決策의 摸索
- ⑥ 文藝改革運動 및 學問的 實用化²⁰⁾

18) 周易 乾卦, 象曰「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

19) 中庸 第一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20) 劉明鍾, 韓國思想史, 대구: 以文出版社, 1982, p. 444.

이와같은 實學的 분위기에서 主體的인 의식에 따라 우리의 歷史, 地理를 實證的으로 연구한 성과가 韓百謙의 「東國地理志」이듯이 海東文獻總錄은 文獻學 分野의 한 성과라고 하겠다.

書志記述은 書名, 著者名과 字, 貫鄉, 登科, 官職, 諡號 등의 傳記大要, 先賢의 주를 실고 있다.

그가 自序²¹⁾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을 지은 목적은 文獻을 밝히기 위함이고, 문헌을 밝히고자 함은 그 인물의 盛衰, 文장의 高下, 世道의 升降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獻을 논하기 위해서는 人物을 논해야 하는데, 人物을 논할 때는 그 인물의 局量과 識見을 먼저 논하고 文藝를 뒤로하며, 述作을 논함은 行跡을 먼저하고 文章을 뒤로했다. 이와같이 함은 맹자의 다음 말씀 즉, ‘그의 시를 외고 그의 글을 읽고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하니, 그의 시를 외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이 마음쓰고 행동함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 참으로 외지 않고 읽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마음을 바로잡는 데 이로우미 없고 공부하는 데 해로움이 있다면 도리어 책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²²⁾를 따랐다고 하였다.

이는 文獻과 그 著者를 구별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文獻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즉, ‘글은 곧 사람이다’는 말처럼 문헌은 곧 사람이니 문헌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 자체의 윤리연구로 옮겨진다. 이는 儒家의 학문하는 태도와 통한다. 유가에서 학문하는 목적은 聖人 즉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림 그리기는 일은 흰 바탕이 있는 다음에 붓을 들여야 하듯이²³⁾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바탕이 있는 다음에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과 같다. 즉 인간 됨됨이가 앞서고 재주나 문예 등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21) 金然, 海東文獻總錄序, 海東文獻總錄, pp. 1-9.

22) 「孟子曰 誦其詩讀其書 不知其人可乎 夫誦其詩讀其書而不知其人處心行事之如何則實與不誦不讀何異 無益於治心而有害於爲學反不如無書之爲愈也」

23) 論語 卷之三 八脩, 「子曰 繪事後素」.

2) 奎章總目

朝鮮朝 正祖 5년(1781) 徐浩修가 편찬한 奎章閣에 소장된 中國冊의 目錄이다. 수록된 문헌은 秘苑內에 있던 閔古觀의 皆有窩 甲乙丙丁庫에 수록되어 있던 것인데,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에 따라 經部(總經類, 易類, 詩類, 春秋類, 禮類, 樂類, 四書類, 小學類), 史部(正史類, 編年類, 別史類, 掌故類, 地理類, 鈔史類, 譜系類, 總目類), 子部(儒家類, 天文類, 曆譜類, 卜筮類, 農家類, 醫家類, 兵家類, 刑法類, 釋家類, 雜家類, 說家類, 藝玩類, 類事類, 叢書類), 集部(總集類, 別集類)로 분류²⁴⁾되었으나 類目的 전개가 다르다.

각 문헌에 대한 書志記述은 그 編著者의 이름과 著作義例를 표기하였으며 때로는 序跋의 글을 截取하여 그 문헌의 概略을 알리고, 때로는 批評의 말을 인용해서 그 편찬의 得失을 밝혔다.

3) 鑲板考

이 책은 저자인 徐有槩의 저술집인 「林園經濟志」의 怡雲志 圖書藏訪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조 당시 京外의 각처에 소장되어 있던 冊板을 조사하여 적은 목록이다. 저작 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增補文獻備考」卷245에 의하면 정조 20년(1796)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범위와 내용은 정조 당시 京師의 각 官衙와 8도의 監營, 府, 牧, 郡, 縣의 지방 관아를 비롯하여 書院·寺刹 및 民家에 藏置되어 있었던 책판 544부를 수록하고 있다. 그 分類체계는 御撰, 御定, 經部(總經類, 易類, 書類, 詩類, 禮類, 春秋類, 四書類, 小學類), 史部(通史類, 雜史類, 傳記類, 史評類), 子部(儒家類, 兵家類, 醫家類, 天文籌法類, 術數類, 雜纂類, 說家類, 類書類, 譯語類, 道家類, 釋家類), 集部(楚辭類, 總集類, 別

24) 南權熙, 奎章閣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分析, 碩士學位論文, 慶北大 大學院 1983. pp.123-124 재인용.

25) 徐有槩, 鑲板考, 洪命憲校訂本, 서울:大同出版社, 1941, pp.1-14.

集類)²⁵⁾로서 御撰과 御定은 著者別 分類이고 經史子集은 內容別 分類로 분류의 구조가 二元的이다.

이 鑄板考의 分類체계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御撰과 御定の 二目を 四部 앞에 세웠다. 임금이 직접 지은 것은 御撰이라 하고 命해서 지은 것은 御定이라 했다. 무릇 列朝의 典學之篇과 憲章之書는 그 의례의 개략을 만들어 四부의 머리에 놓았다. 이렇게 함은 唐 徐堅의 「初學記」에도 太宗 御製를 歷代 앞에 올렸고 焦竑의 「國史經籍志」, 朱彝尊의 「經義考」가 다 이 방식인데, 저자는 높은 이 즉 임금을 높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 이 御製, 御定을 앞세운 것은 당시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四部分類法과는 크게 다른 점으로서 이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로서 正祖朝의 규장각 설치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世祖朝에 내제학 梁誠之가 규장각을 설치하여 御製를 받들기를 청하여 세조가 행하려 했으나 施用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숙종 20년(1694)에도 宗正寺의 煥章閣에 世祖가 친히 쓴 「奎章閣」이란 액자를 奉安하고 역대 국왕의 御筆, 御製를 보관하려 하다 실현되지 못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곧 규장각을 內苑에 설치하고 宮藏書를 건축하고 梁誠之의 의견을 많이 채용했으니 역대 국왕의 詩文, 親筆의 書畫, 願命, 遺教, 璿譜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둘째, 御製와 御定을 제외하고는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을 채용했다.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簿錄之學(分類法)은 七略, 七志, 七錄, 四部, 五부의 다름이 있으나 오직 唐의 經, 史, 子, 集의 四類는 바뀌지 않는 예이므로 이 책에서도 이 四部分類法을 채택했다고 하였다. 그 방대한 버리 가운데 細目과 條分은 歷代 藝文志, 陳振孫의 書錄解題, 鍾音浙江遺書總錄 등 여러 책에서 더하고 덜어서²⁶⁾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改修하였다. 子部의 譯語類는 그 한 예라 하겠다.

셋째, 書志記述의 특징이다. 書名을 標出하고 그 아래에 卷數를 표시하였다. 다음 줄부터는 저자, 저자의 略傳, 藏版, 印紙數 등을 포함하여

26) 徐有槩, 鑄板考 凡例, 전제서, p. 2.

간결한 해제를 붙이고 있다. 이 책판 목록은 비록 해제가 간결하기는 하나 저자표시가 정확하고 책판의 소재, 책수의 欠缺여부 및 인지수를 자세히 밝히고 있어 正祖朝를 전후하여 각 도에서 간행된 책의 서지적 및 문화사적인 연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東國通志

東國通志는 純祖朝의 학자 朴周鍾(1813~1887)이 1868年 檀君 이래로 朝鮮末 純祖朝에 이르기까지 3,000여년 간의 文物 제도를 天文, 五行, 律歷, 地理, 祭祀, 禮樂, 兵衛, 刑法, 食貨, 藝文, 學校, 選舉, 百官, 輿服으로 나누어 모두 24卷 17冊에 수록한 책이다.

저자의 自序인 東國通志凡例總叙²⁷⁾에 의하면 저자가 東國通志를 지은 연유는 歷史書에 志가 있음을 본받아서인데 漢나라부터 이래로 각 時代마다 志가 있으며 고려도 또한 그러하다. 通志라 일컬음은 漢志는 한 시대의 것이지만 여기서는 단군부터 朝鮮朝末期까지 시대를 상하로 통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서적이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하지 아니하면 新라 고려 이상에서 조선조에까지 沿革과 損益之事를 究考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歷代의 志는 다 史에 바탕해서 짓는데 이 책에서는 志만 있고 史가 없는 이유는 史는 是非를 褒貶하는 책이라서 前時代의 史에 대해서 때로는 刪述編纂할 수 있다. 그런데 본조에서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 司馬遷과 班固가 漢나라 역사 및 志를 지음은 사마천은 史官이었고, 반고는 掌史로 역사가술이 자기 직책이었음이다. 국가의 역사란 매우 비밀이어서 금궤나 석실에 갈무리하여 史官이 아니면 엿볼 수 없으니 著者로서는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著者는 오직 책을 보는 여가에 우리나라 古今의 서적을 취해서 삼가 제도와 문물의 사항들을 가려서 내용에 따라 무리지어 분류하여 編秩을 이루니 그것이 이 東國通志이다. 대저 질

27) 朴周鍾, 東國通志凡例總叙, 東國通志上, 서울: 太學社, 影印本 pp. 15-19.

에 갖추어 사사로이 살핀 바이다.

무릇 사건의 마땅함을 서술하는 데는 論斷함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만 없으니 어찌 史에서 혐의하지 않겠는가. 史의 본체는 古今の 得失과 施措의 便否와 政事의 善惡과 사람의 賢否와 나라의 治亂을 좇아서 간략하게 갖추어야 한다. 저자가 이를 지음은 우리나라 풍속이 중국을 사모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寬한데 비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狹하다. 이는 남의 家譜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부모의 나이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하물며 조선이 나라를 세운지 이미 500여년이니 前代 문화의 陋遠함을 씻고 仁賢의 化聲을 이어 文物의 盛大함을 밝히고자 함이다.

분류체계는 漢書 藝文志를 모방했는데 혹 증감이 있음은 시대에 古今이 있어 制度가 간략함과 자세함의 차이가 있기에 篇目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訓民正音을 창제한 世宗大王과 같이 우리 文化에 대한 主體的인 자각에 말미암는다. 그러기에 漢志는 十志로 분류했으나 東國通志는 여기에 學校, 選舉, 百官, 輿服을 첨가하여 十四志로 분류했다. 즉 天文, 五行, 律歷, 地理의 紀와 祭祀, 禮樂, 兵衛, 刑法, 食貨의 本末과 藝文, 學校, 選舉, 百官, 輿服의 源委이다. 이와같이 漢志보다 四志가 많은 이유는 漢志는 한 시대의 역사이지만 이는 단군 기자조선으로부터 조선 純祖朝까지 3,000여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東國通志의 의의는 增補文獻備考가 王命纂의 國家事業이었는데 반하여 東國通志는 朴周鍾의 단독 저술로서 또 하나의 文獻備考가 개인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增補文獻備考에 漏落된 자료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²⁸⁾고 하겠다.

5) 增補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는 中國의 文獻通考의 例에 의하여 편찬한 것으로서 上古로부터 大韓帝國末期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文物制度를 총망라한 것

28) 李樹鳳, 東國通志 解題, 東國通志上, pp.2-3.

이며 三次의 편찬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최초의 편찬은 英祖 46年(1770)으로서 洪鳳漢 등이 王命을 받아 東國文獻備考 100권을 편찬 출판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文物 制度를 象緯 輿地 禮樂 兵刑 田賦 財用 戶口市糴 選舉 學校 職官 등 十三考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그러나 東國文獻備考는 약 반년만에 急造한 것인 까닭에 事實의 相違된 점과 漏落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時代를 내려올수록 法令과 制度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正祖 6年(1782)에 이르러 당시 博學多識으로 유명한 李萬運에게 명하여 이를 補編하게 하였다. 이것이 第二次의 편찬이다. 李萬運은 자기의 私宅에 寫字官을 놓고 9년의 세월에 걸쳐 東國文獻備考 十三考 가운데 오류를 정정하고 탈락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새로 物異 宮室 王系 氏族 朝聘 諡號 藝文의 七考를 增補하여 146卷을 편성하고 이를 增補東國文獻備考라 命名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出版되지 못하고 100여년을 지나 高宗 光武年間に 이르러 第三次의 補編을 맞게 되었다. 高宗 時代に 우리나라는 日本과 西洋의 文物을 수입하여 社會의 모든 制度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에 文獻備考의 각 항을 다시 증보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니 光武 七年(1903)에 특별히 撰集廳을 設置하고 朴容大 등 30여명의 文士에게 명하여 이를 補修하게 하였다. 朴容大 등이 5년의 세월에 걸쳐 李萬運이 편찬한 增補東國文獻備考의 二十考 가운데 物異는 象緯에, 宮室은 輿地에, 諡號는 職官에 붙이고, 王系는 帝系로 고쳐서 氏族을 붙이고, 朝聘을 交聘으로 고쳐 象緯 輿地 帝系 禮樂 兵刑 田賦 財用 戶口市糴 交聘 選舉 學校 職官 藝文 등 16考 250卷을 편성하고 이를 增補文獻備考라 하고 隆熙二年(1908)에 출판하였다.²⁹⁾

增補文獻備考의 편찬동기는 御製增補文獻備考序³⁰⁾에서 살필 수 있다. 歷代의 典憲을 반드시 典籍에 기재하여 그 신빙성을 考究해 본 연후에 時措를 짐작할 수 있다. 공자도 杞나라와 宋나라가 증거할 문헌이 없음을 ‘夏나라 文物을 내가 말할 수 있으나 杞나라는 증거할 수 없으며, 殷나라 文

29) 增補文獻備考 影印序, 增補文獻備考上, 서울: 東國文化社, 1957, 影印本.

30) 御製增補文獻備考序, 전거서.

物을 내가 말할 수 있으나 宋나라는 증거하여 말할 수 없다. 이는 文獻 즉 典籍과 賢者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만약 文獻만 넉넉하다면 내가 증거하여 말할 수 있으리라³¹⁾하고 탄식하였다. 이와같이 비록 국가의 文物制度가 찬란하더라도 문헌이 없으면 후세에 증거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조선 기자조선이 오래 되었으나 신라시대부터 비로소 남겨진 文獻이 있고 대개는 없어졌다. 그리하여 正祖朝의 文獻備考를 비롯해 三次에 걸쳐 增補文獻備考가 완성되었다.

增補文獻備考가 편찬된 당시는 光武年間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1895년의 淸日戰爭과 乙未事變, 1896년의 俄館播遷 등 일련의 사건으로 朝鮮王國을 둘러싼 국제적 力學關係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즉 전통적으로 宗主權을 표방하고 朝鮮王國에의 우월권을 주장해 오던 淸國의 후퇴를 보았고, 신에 近代日本의 朝鮮王國의 침략기도는 東侵, 南下의 北方帝國인 러시아帝國의 도전을 받게 되는 新局面의 전개를 보게 되었다.

韓半島와 滿洲를 둘러싼 東北亞 정세가 점차 긴박을 더하는 상황 아래에서도 韓民族은 생존과 개화를 위한 民族運動을 전개하였다. 정부측 차원에서 추진된 改良主義의 근대화 운동의 일환인 光武改革은 獨立協會의 자주민권 투쟁에 촉발된 자주·개혁의 역사전개로서 전통과의 타협 연결을 피하면서 일련의 개량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여 立憲君主制의 근대국가건설을 지향하게 되었다.³²⁾

淸日전쟁에서의 淸國의 패배 및 立憲君主制 표방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增補文獻備考에 반영된 것으로는 王系를 帝系로, 朝聘을 交聘으로 고친 것을 들 수 있으니, 이는 고려 忠烈王 이후 祖宗을 王으로 낮춘 이후 中國과 동등외교가 될 수 없었기에 계속 天子의 나라인 中國에 대하여 우리는 諸侯의 나라로서 예를 하였다. 그러므로 中國에 使臣이 가는 것을 諸侯가 天子를 알현한다는 뜻인 朝聘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

31) 論語 卷之三 八佾, 「子曰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 서울: 탐구당, 1978. pp. 1-4.

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使臣을 보낸다는 뜻인 交聘이라는 용어로 적었다.

IV. 結

본고는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資料組織 가운데 資料分類에 한정했다. 그 이론적 전제로 살펴본 중국 古典資料의 分類는 매우 다양하지만은 갈래지어 보면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된 七分法과 李充의 「晉元帝書目」에서 굳어진 四部分類法이 큰 줄기를 이루었다. 漢代에는 七略이, 魏晉代에는 四부가 우세했고 隋代에는 七略과 四부가 병행했으나 宋代이후는 四부가 주류를 이루었으니 「四庫全書」가 대표적이다.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의 양상을 살펴보면, 海東文獻總錄은 圖書解題의 集大成으로 金杰가 1637년 당시의 중국의 四部分類法보다는 문헌을 수집 정리한 자신의 경험에 바탕하여 20類로 분류하였다. 이는 資料分類에 있어서 특창적이었으며, 경험론을 중시한 實學的 분위기 속에서 主體的으로 우리 文獻을 다룬 한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書志記述에서는 文獻과 그 著者를 구별할 수 없다는 관점이므로 文獻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人物을 논해야 하고 人物을 논할 때는 그 人物의 局量과 識견을 먼저하고 文藝를 뒤로하며 述作을 논함은 行跡을 먼저하고 文章을 뒤로 했다.

奎章總目은 1781년 徐浩修가 편찬한 中國冊의 목록이다.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에 따랐으나 類目の 전개가 다르다.

鑲板考는 1796년 徐有槩가 편찬했으며 御撰, 御定의 二目을 앞세우고 나머지는 經史子集의 四部分類法에 따랐다. 書志記述에서는 특히 책판의 소재, 책수의 欠缺여부 및 印紙數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東國通志는 단군이래로 조선말 純祖朝까지 3,000여년간의 文物制度를 수록했는데, 漢書 藝文志의 十志를 본받아 우리 事文類型에 맞도록 十四志로

분류했다. 이는 朴周鍾 개인의 단독저술로 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增補文獻備考는 上古로부터 大韓帝國末期까지의 文物制度를 三次에 걸쳐 편찬했다. 처음(1770년)은 13考로 분류했고, 다음(1782년)은 20考로, 마지막(1903년)은 16考로 하였는데, 王系가 帝系로 朝聘이 交聘으로 기록된 것은 민족의식의 반영이었다.

朝鮮朝後期 資料組織은 독창적인 분류를 보인 것도 있고, 중국의 四部分類法, 漢書 藝文志, 文獻通考 등에 依樣되어 와서 점차 우리 상황에 맞게 변개된 것도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柳鐸一 교수의 「古典資料組織」에 힘입은 바 크다.

參 考 文 獻

- 金杰, 海東文獻總錄, 서울:學文閣, 1969, 影印本.
 徐有鑾, 鏤板考, 洪命憲校訂本, 서울:大同出版社, 1941.
 朴周鍾, 東國通志, 서울:太學社, 1986, 影印本, 3冊.
 增補文獻備考, 서울:東國文化社, 1957, 影印本, 3冊.
 四庫全書提要敘 無錫周雲青箋注.
 論語, 中庸, 孟子, 周易
 諸洪圭 編著, 韓國書志學辭典, 서울:景仁文化社, 197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 서울:탐구당, 1978.
 金正昭, 資料分類論, 대구:啓明大學校出版部, 1984.
 柳鐸一 編, 古典資料組織, 프린트본, 1986. 3.
 劉明鍾, 韓國思想史, 대구:이문출판사, 1982.
 李載喆, 集賢殿考,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8.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0, 2冊.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台北: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6(1967).
 余嘉錫, 目錄學發微, 台北:藝文印書館, 民國 63(1974).
 汪辟疆, 目錄學研究, 台北:文史哲出版社, 民國 72(1983).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1984.